

지역 소식통

정읍시, 27만7000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읍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반별 m당 가격으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다.

열람은 시청 공시지가사무실(별관 1층)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일사판리(전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호암·무장 신월마을 전북도 예비마을기업 선정

고창군이 올해 전북도 제2차 마을기업 공모 심사결과, 고창 관내 2개 마을(고창읍 호암 무장면 신월)이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마을은 각각 1000만원의 예비마을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고창 호암마을(대표 방부혁)은 도자기 체험과 판매, 명상을 통한 힐링치유, 생태치유 사업을 개발하여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무장 신월마을(대표 천만식)은 식용곤충 재배, 등촌하초 제품개발, 판매함으로써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과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2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28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박일 의원이 발의한 '동화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 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결, 정읍시 금고지정 및 영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추경 칼날세운 부안군의의회

코로나19 악재 변수 대부분 행사 취소로 예산 전액 삭감 삭감된 보조금 고개 눈살... '의회 경시말라' 집행부 경고

부안군의의회가 2020년 상반기 추경에 산 심의에 들어갔다.

김광수 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지역의원들은 각 담당과 및 사업소에 대해 1회 추경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바이러스 코로나19 악재 또한 많은 변수로 작용해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예산 전액 삭감이 이뤄지는 반면, 전년도에 심사숙고해 전액 삭감한 보조금 행사 부분이 다시 고개를 들며 올라온 예산이 눈길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군의회 의원들이 전년도 본예산에서 고심 끝에 자른 것들도 없고 참여도 없

는 '곰소갯길축제'를 각고에 노력과 방법, 방향이 개선되지 않음에도 임원진만 바뀌고 소금과 갯길 선물공제를 주며 다시 올려, 군의원들이 말한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 집행부에 경고했다.

그러나 군의원들을 경시하고 선물꾸러미로 무력하게 만든 일이 발생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의원들 간의 이해타산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필요하고 중요한 민원과 물센터에 대해서는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처럼 코로나19의 일말이 중요할 때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센터는 다

음이라는 연기로 사라졌다.

부안군은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넘겨진 부안비실체제와 유소년축구대회, 태권도대회까지 거처야 할 일들이 산너머 산이 될 터인데 부안군민이 바라보는 의원들의 상이 스스로 부안군의 회 의원들의 면모를 추락시키는 일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6월이면 상반기 의정이 마감되고 하반기 의정산출이 기대되는 방향 또한 군민들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 의원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잘하겠다고 하나 같은 장소 같은 예산으로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음에도 반성했다 하고 지역구 의원까지 부추겨 아낄 수 없다며 '이번기회를 통해 방인과 개선으로 지역민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부안읍 선은리 5-4번지 부안 지방정원 일원에서 꽃묘 식재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향긋한 꽃향기 맡으며 힐링하세요"

권익현 부안군수, 지방정원 꽃묘 식재 현장행정 실시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군민들에게 힐링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부안읍 선은리 5-4번지 부안 지방정원 일원에서 꽃묘 식재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페추나, 맨드라미, 백일홍, 메리골드, 금잔화 등 4만본을 분양받아 부안읍 선은리 5-4번지 일원 2,000㎡에 꽃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부안지방정원 수질정화시설 6,000㎡에 수생식물(붓꽃, 꽃창포, 갈대)을 식재하여 이번달 말경에 꽃이 활짝 피어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심신을 위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안 지방정원내 꽃묘를 식재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탐방객에게 향긋한 꽃향기와 아름다운 꽃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 속에 군민들이 활짝 핀 꽃을 보며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코로나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

복지교육국 직원 장보기 행사로 지역경제 회복 기대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직원 100여명은 지난 28일 생고를 시장과 연지시장을 찾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활용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소비 촉진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복지교육국(국장 박복만) 소속직원 100여명은 지난 28일 생고를 시장과 연지시장을 찾아 정읍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활용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의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나눔도

실현하자는 취지다.

이날 유 시장과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생필품을 구매하고, 시장 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등 참여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을 보탤다.

또 유 시장과 박 국장은 시장을 돌아보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지역경제도 살리며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정읍시민 모두에게 1명당 10만원씩 총 110억을 지급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5만4천 가구에 총 3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시는 지원금을 활용해 많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소비촉진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SNS, 시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생고를시장을 비롯한 연지시장과 신태인시장 상인회도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소독은 물론 마스크 착용하고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자매도시 수산물 팔아주기 '훈훈'

사천시 활어회 400여만원 구매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도시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자매결연 도시인 경상남도 사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수(水)산물의 날' 행사에 동참하며 지난 29일 사천시 활어회 세트 특가판매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수산물 소비량 감소와 재고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매도시의 수산물 판매 촉진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

시는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판촉 행사를 발인 결과 사천시에서 준비한 활어회 전부를 구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직원들의 높은 호응으로 당초 예상했던 300만원 매출을 훨씬 뛰어넘는 400여만원의 판매를 달성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와의 친밀한 교류를 해온 자매결연 도시와 연대하고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미래에 더 많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확충 팔건어

'대한민국 유기농 우유1번지' 고창군이 대대적인 낙농사업을 추진하며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

지난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낙농가의 노동환경 개선과 고품질 우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착유시설 개보수 등 올해 10개 사업에 13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농가들의 전폭적인 호응이 큰 낙농센터 지원사업은 낙농가에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인력 보충을 돕는 전문 도우미가 일시적으로 위탁 관리해 준다.

또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과 '착유시설 개보수'를 통해 농장 청결 유지관리 및 젖소 유방염 예방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